

2018년 9월 1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0%

애플 및 애플 관련주도 2~3%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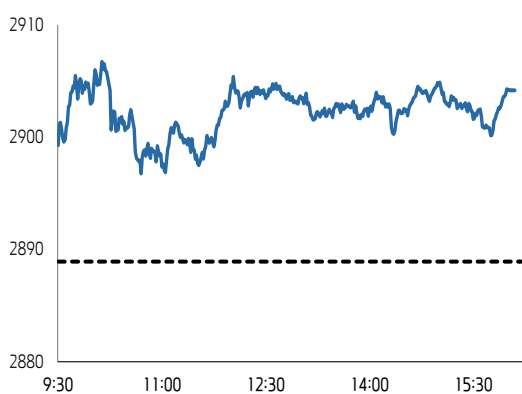
미 증시 상승 요인

미 증시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압박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받는다” 라고 주장하며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음. 그러나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던 반도체와 산업재가 상승 주도. 더불어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와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부품주와 더불어 상승한 점도 강세 요인(다우 +0.57%, 나스닥 +0.75%, S&P500 +0.53%, 러셀 2000 -0.08%)

미 증시는 ①무역분쟁 완화 ②반도체 업종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전일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분쟁 관련 협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옴. 특히 ‘몇 주’ 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 최소한 몇 주 동안은 관세 발효 우려에서 안도감이 유입. 비록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은 중국이 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역설적으로 관세 발효 시기와 관련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 한편,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은 미국이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발효를 단행할 경우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감소. 이로 인해 S&P500 지수가 단기적으로 5%~25%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관세 발효에 우려를 표명.

한편, 반도체 업종이 강세. 특히 마이크론(+4.50%)은 장중 한 때 6.6% 상승. 최근 CLSA, 골드만삭스 등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9 월들어 22% 하락하는 등 부진. 그러나 오늘은 헤지펀드인 Appaloosa 의 David Tepper 가 마이크론에 대해 미래가 밝다고 발표. 특히 “서버, 클라우드, 스마트 자동차의 수요가 크며 메모리칩 업황에 대해 큰 미래가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0% 상승. 한편, 마이크론은 20 일(목)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 최근 한달동안 EPS 추정치가 1.86% 하향 조정 되었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63.4%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매출도 전년 대비 33.9% 증가 예상하며 견고한 실적 발표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86.23	+0.14	홍콩항셱	27,014.49	+2.54
KOSDAQ	830.95	+0.56	영국	7,281.57	-0.43
DOW	26,145.99	+0.57	독일	12,055.55	+0.19
NASDAQ	8,013.71	+0.75	프랑스	5,328.12	-0.08
S&P 500	2,904.18	+0.53	스페인	9,329.20	+0.24
상하이종합	2,686.58	+1.15	그리스	678.83	-1.66
일본	22,821.32	+0.96	이탈리아	20,846.18	-0.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및 반도체 업종 강세

애플(+2.42%)은 새로운 아이폰이 중국에서의 판매 증가 기대감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브로드컴(+2.41%), 큐로브(+2.50%), 스카이웍(+3.37%) 등 관련 부품 주도 동반 상승 했다. 마이크론(+4.50%)은 일부 헤지펀드가 마이크론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자 장중 한 때 6.6% 급등 하는 등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TI(+1.13%), 인텔(+1.42%), 쉘컴(+3.99%) 등 도 동반 상승 했다.

보잉(+0.58%)과 캐터필라(+0.87%), 3M(+1.13%) 등 산업재와 히(+0.56%), 포드(+0.32%) 등 자동차 업종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중국만 압박을 받고 있다며 기대감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한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한편, 엑손모빌(-0.97%), EOG리소스(-0.27%), 코노코필립스(+0.81%), 셰브론(+0.44%)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며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51%	대형 가치주 ETF	+0.27%
에너지섹터 ETF	-0.58%	중형 가치주 ETF	+0.25%
소매업체 ETF	-0.71%	소형 가치주 ETF	-0.07%
금융섹터 ETF	-0.14%	배당주 ETF	+0.16%
기술섹터 ETF	+1.15%	변동성 ETF	-3.06%
소셜 미디어업체 ETF	+2.15%	대형 성장주 ETF	+0.70%
인터넷업체 ETF	+0.17%	중형 성장주 ETF	+0.37%
리츠업체 ETF	+0.62%	소형 성장주 ETF	+0.01%
주택건설업체 ETF	-0.98%	신흥국 고배당 ETF	+1.17%
바이오섹터 ETF	+0.7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87%
헬스케어 ETF	+1.21%	하이일드 ETF	+0.17%
곡물 ETF	-0.47%	물가연동채 ETF	-0.14%
반도체 ETF	+1.23%	Long/short ETF	+0.2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42.83	+0.00%	+1.45%	+2.50%
소재	371.77	+0.32%	+0.07%	+2.92%
산업재	658.50	+0.51%	+1.04%	+4.76%
경기소비재	931.39	+0.07%	+1.44%	+4.69%
필수소비재	561.71	-0.36%	+0.67%	+1.78%
헬스케어	1,082.49	+1.14%	+1.51%	+4.14%
금융	463.92	-0.15%	-1.12%	+0.86%
IT	1,311.64	+1.15%	+1.46%	+2.99%
통신	159.23	+0.30%	+2.96%	+3.35%
유틸리티	274.87	+0.77%	-0.29%	+1.39%
부동산	208.11	+0.47%	-0.18%	+1.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0.96% MSCI 신흥지수도 1.30%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1.80pt 상승한 295.0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9.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며 상승 했다. 특히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이끌었다. 더불어 애플과 애플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논란이 재 유입되며 관련 종목이 부진한 점이 상승을 제한한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미 증시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이 이어지며 관련 종목이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또한 전일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한 이후 관련종목이 하락한 점도 상승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미 증시에서 애플과 애플 부품주가 2~3%대 강세를 보이며 완화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번 아이폰에 대해 이미 시장에서 예측했던 내용이 그대로 발표 되었다는 실망감에 전일 하락했으나, 중국에서의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오늘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모델에서는 듀얼 심 기술이 접목된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중국 판매 증가 기대감이 유입된 결과이며 이는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하지만, 최근 격화되었던 시기와 달리 완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중국 실물 경제지표 발표도 주목된다. 이러한 주변여건을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mom +0.3%)를 하회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2.7% 증가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전년 대비로도 2.2% 증가에 그치며 예상을 하회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0 만 5 천건) 보다 소폭 감소한 20 만 4 천 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도 지난 주(21 만건) 보다 감소한 20 만 8 천 건에 그치며 여전히 견고한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OPEC 산유량 증가 여파로 하락

국제유가는 세계에너지기구(IEA)가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자 하락 했다. IEA는 OPEC의 8월 산유량이 7월보다 하루 42만 배럴 증가한 3,263만 배럴로 기록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년내 최고로 급증한 것인데 이란의 산유량 감소를 감안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산유량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더불어 수요 전망은 그대로 유지 했다. 다만, 일부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속에 수요 감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112 엔까지 상승 했다. ECB 통화정책과 BOE 통화정책 회의에서 ECB와 BOE는 금리를 동결했으며, 드라기 ECB 총재가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한 점을 감안 달러 대비 강세폭은 제한 되었다.

국채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졌으나, 30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2분기 평균(2.39배)보다 소폭 하락한 2.34배에 그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한편, 랜달 퀴스 연준 이사와 보스틱 애플란타 연은 총재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위험자산 선호심리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성장 기대감이 약화되고, 국제유가도 약세를 보이자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 시장의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0% 상승을, 철근은 보합을 유지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8.59	-2.53	+1.21	Dollar Index	94.544	-0.27	-0.50
브렌트유	78.18	-1.96	+2.20	EUR/USD	1.169	+0.55	+0.58
금	1,208.20	-0.22	+0.32	USD/JPY	111.97	+0.64	+1.10
은	14,244	-0.34	+0.44	GBP/USD	1.3108	+0.48	+1.38
알루미늄	2,064.00	0.00	+1.18	USD/CHF	0.9655	-0.56	+0.03
전기동	6,033.00	+0.60	+1.78	AUD/USD	0.719	+0.29	-0.14
아연	2,360.00	-0.44	-3.32	USD/CAD	1.3005	+0.05	-1.04
옥수수	350.50	-0.57	-4.30	USD/BRL	4.2001	+0.96	+1.31
밀	497.00	-1.92	-3.26	USD/CNH	6.8426	+0.10	-0.03
대두	833.25	-0.80	-0.71	USD/KRW	1122.40	-0.55	-0.14
커피				USD/KRW NDF 1M	1119.55	+0.00	-0.2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972	+0.92	+9.87	스페인	1.466	+0.60	+2.00
한국	2.262	+1.20	-1.30	포르투갈	1.857	+0.10	-1.60
일본	0.112	-0.10	+0.10	그리스	4.006	-5.70	-38.00
독일	0.423	+1.20	+6.80	이탈리아	2.948	+0.10	-10.60